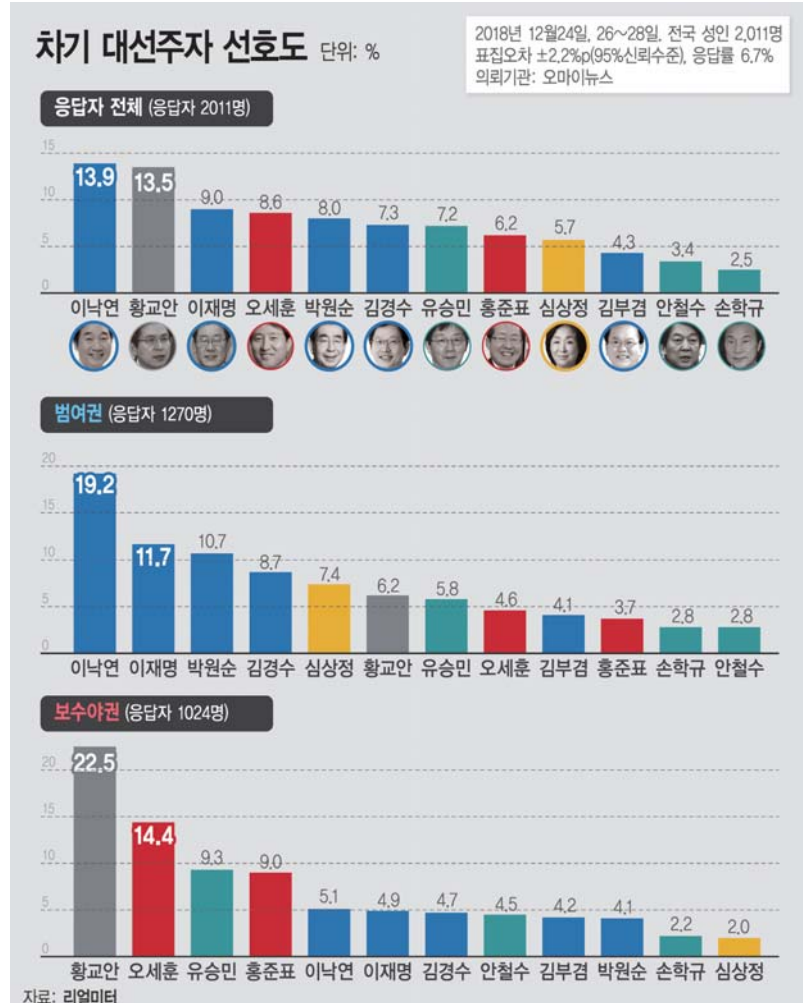


“차기 대선주자, 1위 이낙연 2위 황교안 오차 범위 접전”

리얼미터 여론조사...3·4위 이재명·오세훈 순



여론조사업체인 리얼미터는 지난달 24, 26~28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2011명에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를 한 결과, 이낙연 총리가 13.9%로 1위를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13.5%로 두 주자가 0.4%p 밖의 선두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 각각 1·2위를 차지하며 오차 범위 내 각축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는 지난달 24일, 26~28일 전국 성인 2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낙연 총리 선호도가 13.9%로 1위를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조사 때보다 1.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2위는 황교안 전 총리로, 13.5%를 얻었다. 지난 조사보다 0.6%포인트 오르면서, 이 총리와 오차 범위가 0.4%포인트로 좁혀졌

다.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가 2.0%포인트 오른 9.0%를 기록, 지난달 공동 4위에서 3위로 한 계단 상승했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1.7%포인트 오른 8.6%로 공동 6위에서 4위로 두 계단 올랐다. 다음으로 박원순 서울시장(8.0%)이 5위, 김경수 경남지사(7.3%)가 6위,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7.2%)가 7위,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6.2%)가 8위, 심상정 정의당 의원(5.7%)이 9위를 기록했다.

이밖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4.3%),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3.4%),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2.5%) 순이었다.

특히 범진보 진영 대선주자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범여권·무당층에서는 이 총리가 지난달 11월 조사 대비 2.1%포인트 내린 19.2%를 기록, 10%대로 하락했으나 여전히 다른 주자와 큰 격차로 1위를 유지했다.

이재명 지사는 2.6%포인트 오른 11.7%로 지난달 4위에서 2위로 두 계단 상승했고, 박원순 시장은 1.0%포인트 내린 10.7%로 한 계단 하락한 3위로 조사됐다. 이어 김경수 지사가 0.1%포인트 오른 8.7%, 심상정 의원이 2.4%포인트 내린 7.4%, 김부겸 장관이 0.2%포인트 내린 4.1%를 기록했다.

한편 범보수 진영 대선주자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보수야권·무당층에서는 황 전 총리가 22.5%를 기록, 다른 주자와 큰 격차로 1위를 유지했다.

오세훈 전 시장은 14.4%로 지난달에 이어 2위를 이어갔고,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는 0.9%포인트 내린 9.3%를 기록했으나 3위로 한 계단 상승했다.

이어 홍준표 전 대표가 9.0%, 안철수 위원이 4.5%, 손학규 대표가 2.2%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3만299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6.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스

지역구감리배정조 정문리직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정의당 “전두환이 민주주의 아버지? 자기 최면도 이만하면 병”

“무죄여서가 아니라 온 좋게 형벌 사면 받았을 뿐”

정의당은 2일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씨가 전 전 대통령을 ‘민주주의 아버지’라고 언급한 데 대해 “자기 최면도 이만하면 병”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변변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전씨는 광주를 생지옥으로 만든 화살자다. 그 죄가 인정돼 1997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며 “지금 그의 운신이 자유로운 것은 그가 무죄여서가 아니다.

온 좋게 형벌을 사면 받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도 전씨는 단 한 번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적이 없다”며 “오히려 부부가 회고록을 내며 자신들을 5·18의 억울한 희생자라며 망언을 늘어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변인은 특히 “이씨는 남편이 치매를 앓아 5·18 관련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며 “치매를 앓으면서 재작성 회고록은 어떻게 냈는지, 골프치러 다니던 사람은 전씨가 아니고 전씨 ‘이비타’

인지 의아하까만 하다”고 비꼬았다.

이어 “전씨가 잔폭로 재판에 불출석하며 정상적인 재판 진행을 막고 있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토록 국민을 우롱하니 강제구인을 해서라도 법정에 전씨를 세워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전씨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조금이나마 유지하고 싶다면 광주 영령 앞에 무릎꿇고 사죄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을 비에야 전씨 부부는 그 입 다물고 더 이상의 망발을 멈추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문 대통령 “국무위원들과 함께 파이팅”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 기해년 신년회를 마친 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국무위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박지원 “한국당 특검요구, 사또 지나간 후 나발부는 격”

“청와대·정치권, 검찰수사 촉구하고 결과 지켜볼 때”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2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 갈등이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청와대 특별감찰관 비리 의혹에 대해 “큰 파장은 끝났다고 본다”며 “한국당이 이제 와서 국정조사·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사또 지나간 후 나발 부는 격으로 국민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김효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한국당에서 운영위를 소집해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수석이 출석했지만 한 방도 없고 성과도 없었다”며 “이제 이 문제가 한번 걸러졌기 때

문에 청와대, 한국당, 정치권도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그 결과를 지켜볼 때”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최근 잇따라 폭로전을 벌이는 것에 대해선 “신 전 사무관이 차관보와의 카톡 내용, 문서 등을 폭로하겠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옳지 못한 처신”이라며 “어찌됐건 청와대가 6급 행정관과 싸우고 이제 기재부가 물러난 5급 사무관과 싸우면서 흔들린다면 이 정부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리더십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와 내각의 과감한 쇄신을 통해 인적 개편은 물론 최저 임급 인상, 노동시간 단축, 탈원전 등 누구도 반대할 수는 없지만 보완 및 속도 조절이 필요한 정책 등에 대한 정책 전환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 경제 문제가 언론의 ‘실재 프레임’에 갇혀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과거 조선, 자동차 경기가 안 좋은데도 이 분야의 상황이 옳으니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어야 한다’고 한 것처럼 국민들은 모두가 경제가 안 좋다고 인식하는데 대통령만 그렇게 인식하고 언론 탓을 하면 성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

Drawing 이호동

광산구